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2009년), pp. 29~58
연구논문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박 경 숙**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만주와 일본에서의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에서, 1935-1940년에는 20.4‰, 1940-1944년에는 24.4‰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만주와 일본에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만 여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약 69%인 870 만여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만주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이후의 정치 역학과 사회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귀환하지 않은 해외 조선인들의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핵심단어: 식민지 조선, 인구동태, 만주이주, 재만조선인, 일본이주,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I. 머리말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인구동태는 한반도 안과 밖에서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자연성장률도 크게 성장하였고, 국내외 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기 동안 정확히 얼마만큼의 조선인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동태의

* 식민지 인구동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귀중한 이론적 논거를 알려주신 동아대 한석정 교수님, 논문 수정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 만주 관련 귀중한 자료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일 교수님과 자료 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서울대 박사과정 박우 군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pks0505@snu.ac.kr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인구 변동에 주목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구변천은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중요한 토대이자 그 변동의 성격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식민지 근대성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학술적 공방은 인구변천의 성격을 논하는 지형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인구변천은 식민지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이나 내용은 날카롭게 대치되지만 논쟁의 근거가 되는 인구동태가 정확히 어떤 특성이었던가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식민지 시기 총량적인 인구성장과 그를 결과한 사망률의 감소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Kwon, 1977;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2006; 신동원, 1989), 이 시기 일어났던 집단적인 디아스포라의 규모와 그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식민지 시기 인구동태에 주목한 두 번째 이유는 인구 자료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호적정리 방식의 변화, 경찰에 의한 호구조사의 실시, 그리고 영토내의 거주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국세조사의 실시 등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집계가 이루어졌다. 물론 등록체계가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편의성도 크지만, 현대의 기준에서 볼 때도 상당한 정도의 조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식민지 시기 어떤 인구 자료들이 집계되었고 또 얼마나 정확하며 일관성을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식민지 시기 조선 인구에 대한 선행연구와 집계된 자료를 검토한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인구를 집계하였다. 그렇지만 조사목적에 편의가 있고, 미등록, 지연신고, 왜곡 등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민지시기 조선인구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요한 연구가 있다. 그런데 각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식민지시기 조선 인구 자료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인구추정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조선인의 인구 동태는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진 인구동태와 한반도 밖에서 이루어진 동태 분석으로 크게 구분된다. 분석주제는 구분되지만, 두 동학은 사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한 쪽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동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고려에서, 조선내지인의 자연성장율을 조선내 현주인구크기와 해외로 나간 유출규모를 통해 추정하고, 해외 유출인구는

다시 조선내지인의 동태율과 이주자료에 기초해 추정하였다. 해외 유출인구는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에 제한하였다. 식민지 시기 만주와 일본 외에도 연해주에 거주한 조선인이 20여 만명이었고 하와이, 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 3만 여명이 거주하였다고 기록되지만, 그 수가 제한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이들 지역에 체류한 조선인은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이채문, 2000; 김민영, 2000; 윤인진, 2004).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기 한반도 안과 밖에서 이루어진 인구동태의 특성과 함의를 살펴본다.

II. 식민지 시기의 조선 인구에 대한 선행 연구와 자료

1. 조선내 인구

식민지 시대 조선통계자료로서는 국세조사와 현주호구 조사와 같은 정태자료와 출생, 사망 등 신고에 기초한 동태조사 자료가 있다. 국세조사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실시된 총조사이다. 원래 1920년에 일본과 조선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3·1운동으로 조선에서는 1925년에 실시되었다. 1925년 첫 국세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930년, 1935년, 194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되었고, 1944년 국세조사는 전시동원을 목적으로 <자원조사법>에 따라 5월 1일 노동력 조사를 주로 한 특수한 국세조사로 이루어졌다(최봉호, 1997).

현주호구(現住戶口) 통계는 이름과는 달리 상주인구(de jure) 기준으로 조선총독부가 연차별 집계한 통계이다. 현주호구(現住戶口) 통계는, 식민지 인구통계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주로 경찰의 호구조사에 기초하여 집계되었다. 그런데 모든 인구가 등록된 것은 아니다. <표 1>에 제시된 등록자료에 따르면 1910년에서 1944년까지 유출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2% 정도로 인구가 성장하였다고 계산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는 조사체계의 미흡과 편의 등으로 많은 인구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등록인구와 본 연구를 통해 추정한 인구를 비교하면서 등록율의 개선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1910년 호구조사인구는 추정된 인구의 79.4%에 그치고 있다. 1910년 이후 등록율이 상당히 개선되고 1925년에서 1939년까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가, 1942년 이후에는 오히려 과다집계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표 1> 일제시기 조선 내 인구

년도	국세조사인구 (천명)	호구조사 인구 (천명) a	추정치 (명) b	등록율 a/b*100	년도	국세조사인구 (천명)	호구조사 인구 (천명) a	추정치 (명) b	등록율 (a/b)*100
1910		13,128	16,540,663	79.37	1931		19,710	20,860,111	96.31
1911		13,833	16,689,683	82.88	1932		20,037	21,210,382	96.17
1912		14,566	16,839,685	86.50	1933		20,205	21,571,412	96.10
1913		15,170	16,992,223	89.28	1934		20,514	21,893,217	95.97
1914		15,621	17,159,002	91.04	1935	22,208	21,249	22,208,000	95.68
1915		15,958	17,326,883	92.10	1936		21,373	22,572,981	95.82
1916		16,309	17,456,221	93.43	1937		21,682	22,913,494	96.16
1917		16,617	17,568,550	94.58	1938		21,951	23,241,991	96.45
1918		16,697	17,654,546	94.58	1939		22,098	23,435,448	96.61
1919		16,784	17,731,977	94.65	1940	23,547	22,955	23,547,000	97.49
1920		16,916	17,854,109	94.75	1941		23,913	23,828,080	98.64
1921		17,059	18,092,988	94.29	1942		25,526	24,234,052	100.44
1922		17,209	18,321,291	93.93	1943		25,827	24,576,032	100.75
1923		17,447	18,556,171	94.02	1944	25,120	25,120	25,120,000	100.00
1924		17,620	18,767,307	93.89	1945.8			25,266,258	
1925	19,020	18,543	19,020,000	97.49					
1926		18,615	19,327,123	97.41					
1927		18,631	19,609,184	97.40					
1928		18,658	19,844,562	97.37					
1929		18,785	20,130,887	97.23					
1930	20,438	19,686	20,438,000	96.32					

자료: 국세조사는 KOSIS,
호구조사는 통계청 기획과(1994)에서 원용함.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사산 등의 동태 통계는 호적에 신고 된 자료로서 1911년부터 발표되었지만 인구동태 통계가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10월 <조선인구동태규칙>이 발표된 이후라고 한다(金哲, 1965; 최봉호, 1997). 이 법에 기초하여, 부, 읍, 면 단위에서 작성된 인구조사표를 집계한 <조선인구동태통계>가 1937년에서 1942년 사이 매년 발표되었다. 김훈은(1962) 조선의 1937년 출생 신고율은 71%이고, 사망 신고율은 71%, 1942년에는 출생 신고율이 102%이고, 사망 신고율이 102%라고 추정한다. 김철(金哲,1965)에 따르면 지연신고된 출생건수는 1942년에 42만, 1941년에는 26만에 이르는데, 1942년에 지연신고건수가 크게 는 것은 이 때 식량배급제도가 시작되어 그 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출생아가 한꺼번에 신고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망 신고 지연건수는 1942년에 2만, 1941년에 1만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생의 지연신고가 사

망보다 몇 십 배 더 큰 것은 출생율이 사망률에 비해 더 과소추정된 개연성을 반영한다. 또한 출생율과 사망률의 차이가 실제 자연증가율보다 적게 측정되었음을 가리킨다.

2. 만주의 조선인

조선인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동북삼성 혹은 만주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으로의 이주로 시작되었다. 박창욱(1995)에 따르면 조선인의 중국 전입사는 17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는 주로 조선북부 빈민 출신이거나 정치사화로 망명한 양반, 청과의 전쟁에서 납치된 백성들이 요동지역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청은 불법 월경을 금하는 봉금정책을 19세기 후반까지 펼쳤지만 조선북부 빈민들이 동변도 지역으로 불법 잠입하여 두만강 일대의 토지를 개간하였다. 청조도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주자를 통해 황무지를 개간하는 정책(移民實邊)을 폈다. 1885년에는 해란강 이남 지역을 한인전문개간지역으로 제정하는 등 이주자를 통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곳에서 조세를 꾀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인이 좀 더 비옥한 땅을 찾아 해란강 이남 이북, 연변지역, 동변도, 요동, 요북 지역으로 이주지를 넓혀갔다고 한다.

조선인의 본격적인 이주는 식민지 지배 이후에 일어났다. 박창욱(1995)은 1910년에서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9·18사변까지를 조선인의 자유이민시기로 파악하였다. 이 시기 이주는 점차적으로 이남출신으로 확장되었는데, 농민 전반의 경제적 궁핍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이남 출신 빈농의 만주이주가 전개되었다는 박창욱의 주장은 1930년 이후부터 이주자가 한반도 지역으로 다양화되었다는 윤인진(2004:93)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만주 조선인의 규모와 이주자의 규모에 대한 집계는 대부분 만주국 시기의 집계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 인구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동아경제국조사>, <만주제국연감>, <현주호구통계>등이 집계되었고 1941년에는 임시국세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자료원에 따라 인구 수치에 편차를 보이고 있다(<표 2>).

여러 자료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로의 이주가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권태환은 1930년대 후반 25 만 명 정도가 만주지역으로 집단이주 하였고 이 시기 만주 조선인 인구가 약 50만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권태환, 1996). 주성화는 1935년 이후 만주의 조선인 인구가 매 년 8만 정도 성장하였

<표 2> 만주 조선인의 분포

(단위: 명)

	박창욱 (1995)	권태환 (1996)	주성화 (2007)	김게르만 (2005)	김경일 (2004)
1910		220,000			
1911	168,450				
1912		238,403			
1920		459,427			459,427
1921					488,656
1922	515,865				516,865
1923					528,027
1924					531,857
1925		531,973			531,973
1926					542,185
1927					558,280
1929					597,677
1930	607,119	607,119			607,119
1931	630,982				630,982
1932				627,649	672,649
1933	655,972		552,103	673,794	673,794
1934	710,600		662,861	719,988	719,988
1935	850,062		743,212	826,570	807,506
1936	854,411		863,957		875,908
1937			931,620	968,484	
1939	1,065,523		1,162,127	1,056,120	
1940		1,450,384	1,345,212	1,145,028	
1941			1,464,590	1,322,075	
1942			1,540,583		
1943				1,414,144	
1944	1,658,572			1,658,572	
1945	2,160,000			1,825,329	
1949	1,110,657				
1949, 10	1,200,000				
1953		1,120,400 (1,111,274)			

자료:

박창욱(1995)-해방 전부터 1930년의 자료는『만주연감』, 1944 자료는 국민당자료인 『동북경제소총서』 섬유공업편 (1947)을, 해방 후부터는 동북인민정부 민족사무처 1950년 자료를 참조함.

권태환(1996)-일본정부가 집계한 『동양경제연감』과 만주 國務院總務廳 (1943)『만주국 임시국세조사 보고』 에 집계된 수치와 동일함.

1953년 인구 수치- 권태환은 1956년 『중국연감』에 집계된 1953년 조선인 인구가 1,120,400명으로 제시하고, 윤호(1993)는 1953년 중국센서스에 집계된 조선인이 1,111,274명으로 밝힘.

김게르만(2005)-1937년까지는 일본정부가 집계한 동경 동아경제조사국 자료와 『만주연감』을 참조함. 이후 수치는 중국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함.

주성화(2007) - 『만주제국현주호구통계』.

김경일 외(2004) -1920년부터 1935년까지는 만주노공협회 편(1941) 『만주노동연감』, 1936년말 인구는 만주국통신사(1941) 『만주개척연감』을 활용함.

고 1938년에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주장한다(주성화, 2007: 214). 또한 김게르만(2005)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한인의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1945년을 제외하면 박창욱(1995)이 제시한 수치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김경일 외(2004)가 집계한 1934년 이전 까지의 자료는 권태환, 김게르만, 박창욱이 제시한 수치와 일치하는 년도가 많은데, 만주노공협회가 편찬한 <만주노동연감> 자료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만주로 이주하였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나누어지는 것 같다. 권태환은 이 시기 만주로의 이주 규모는 미미하다고 판단한다(Kwon, 1977: 175). 일본이 중일전쟁이후 일본이주에 대한 통제정책을 풀고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일본으로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만주로의 이주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1940년 이후에도 인구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1945년 집계자료가 차이가 큰데, 박창욱(1995)의 집계에서는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약 50만이 늘었으며, 김게르만(2005)의 집계에서는 18만 정도 증가한다. 1년 사이 50만 인구가 증가한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이 시기 만주 외부지역에서 임시로 송환된 인구와 군대에서 나온 조선인이 함께 집계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3. 일본의 조선인

1909년 한국에 머문 일본인이 126,168명이었던 반면 일본에 머문 조선인은 790명에 그쳤다(朴在一, 1957). 한편 일제 지배가 시작되면서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대부분 새로운 농지를 찾아 이주한 것과는 달리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일본 공업부문 노동시장의 잠재적 노동자 군으로 흡수해 들어갔다. 조선인의 일본 이주는 그 규모와 원인, 이주정책의 특성과 관련하여 자유이주시기(1910-1938)와 강제연행시기(1939-1945)로 구분하는 연구(강재언·김동훈, 1994)도 있고, 유치기(1910-1925), 억제기(1926-1938), 강제징용기(1939-45)로 나누는 연구도 있다(朴在一, 1957).

일본내 조선인을 분석하는데 활용한 자료는 일본 내장성, 총독부, 법무부입관자료, 후생성, 경찰국 등에서 집계하였다. 그런데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일조선인의 규모에 대한 수치가 여러 자료들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난다. 국세자료와 등록자료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는 이주자가 등록, 신고체계에서 누락되어 과소등록 되었을 개연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집계하였는가에 따라 수치 차이가 있는데, 집계자료를

<표 3> 재일조선인의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명)

	최석신 외 (2005)	강재언 김동훈(1994)	박재일 (1957)	내무성 경보국	조선총독부	국세조사
1909	790	790	790			
1910						
1911	2,527					
1912	3,171					
1913	3,635		3,952	3,635		
1914	3,542		4,175	3,542		
1915	3,917	3,989	5,046	3,917	3,989	
1916	5,624	5,638	7,225	5,624	5,638	
1917	14,502	14,501	17,463	14,502	14,501	
1918	22,411	22,262	27,340	22,411	22,262	
1919	26,605	28,272	35,995	26,605	28,273	
1920	30,189	30,175	40,755	30,189	30,178	40,755
1921	38,651	35,876	48,774	38,651	35,876	
1922	59,722	59,865	82,693	59,722	59,851	
1923	80,415	80,617	112,051	80,415	80,617	
1924	118,152	120,248	168,002	118,152	120,238	
1925	129,870	133,710	187,102	129,870	133,710	
1926	143,798	148,503	207,853	143,798	148,503	
1927	165,286	175,911	246,515	171,275	175,911	
1928	238,102	243,328	341,737	238,102	243,328	
1929	285,206	276,031	387,901	275,206	276,031	
1930	298,091	298,091	419,009	298,091	298,091	419,009
1931	311,247	318,212	437,519	311,247	318,212	
1932	390,543	390,543	504,176		390,543	
1933	456,217	466,217	573,896		456,217	
1934	537,695	537,576	639,651		537,576	
1935	625,678	625,678	720,818		625,678	
1936	690,501	690,501	780,528		690,501	
1937	935,689	735,689	822,214		735,689	
1938	799,878	799,865	881,347			
1939	961,591	961,591	1,030,394			
1940	1,190,444	1,190,444	1,241,315		1,190,444	1,241,315
1941	1,469,230	1,469,230	1,469,230			
1942	1,625,054	1,625,054	1,625,054			
1943	1,882,456	1,882,456	1,768,180			
1944	1,936,843	1,936,843	1,911,307			
1945	2,363,262	2,100,000	2,100,000			2,100,000

자료:

최석신 외(2005)- 정혜경(1945)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 연구』, p.48, 1951년은 입관협회(2003) 『재유외국인통계』을 참조함.

강재언 김동훈 (1994)- 1909년은 『일본제국연감』, 1915-1944년 통계는 내무성 경보국 통계임.

내무성경보국, 조선총독부, 국세조사집계는 일본 法務省入國管理局(1953) 『數字からみて在日朝鮮人』 入國執務調査資料第八号 pp. 8-9에서 인용함.

재구성할 때 자료들의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하나로 취합하여 변화를 제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최석신 외(2005)는 일본에서 파악된 통계(내무성경보국)를 주로 인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1932년에서 1935년은 조선총독부에서 파악한 통계를 활용하였다. 강재언· 김동훈(1994)은 주로 조선총독부에서 파악한 자료와 1939년에서 1944년은 일본에서 파악한 통계를 보완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대체로 1945년 이후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전후 혼돈시기로서 어떤 공식집계도 불완전하고 편의가 클 수 있다. 이렇게 수집이나 집계가 다른 자료들의 편의들이 복잡하게 얽히어 재구성된 자료가 다시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이용되면서 일관성과 정확성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박재일(朴在一, 1957)은 내무성 경찰보국이 조사한 호구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호구자료의 연차별 인구변동의 추이와 국세조사의 인구크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인구를 추정하였다. 박재일(朴在一, 1957)이 추정한 조선인 규모는 내무성과 총독부의 집계인구나 최석신 외(2005)와 강재언·김동훈(1994)이 정리한 값에 비해 더 크다.

이렇게 식민지 시기 조선, 일본, 만주지역에 분포한 조선인의 규모 및 동태에 대한 자료는 일제의 식민지배의 목적에서 체계적으로 집계되었지만 편의에 따른 조사, 지연신고, 불완전한 등록 등으로 정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상이한 자료들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여기서는 여러 자료들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인구 동태를 추정하였다. 식민지 기간 동안 해외이주의 규모가 컸고, 매년 이주 규모에 변이가 커서 평균성장율로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자연증가율과 이주율을 추계하여 조선 내외 인구 크기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조선 내 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집계자료는 1925년 이후 국세조사 자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1925년 이전 인구는 자연성장율과 해외 유출인구에 기초하여 역으로 추정해 나갔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만주와 일본에 이주한 조선인은 만주와 일본에서 집계한 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

III. 한반도 내외 조선인의 인구 동태 추정

1. 자연성장율의 추정

우선 국세조사 인구집계가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세조사 이후와

이전의 연차별 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1925년에서 1944년 국세조사 사이 연차별 인구를 구하기 위해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최우도 방법으로 반복 추정하였다(<식 1>). 먼저 인접한 두 국세조사 인구(P_0, P_5)에 두 조사 기간 사이 매년 유출된 인구($O_{1,..}O_5$)를 합하여 성장률($\dot{r}$)을 구한 뒤 유출인구에 동 자연성장율에 적용하여 유출인구의 잠재적 크기를 다시 추정하여 국세조사 사이의 연평균 자연증가율을 다시 추정하였다. 새롭게 추정한 성장률 값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렇게 구한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자연증가분을 구하고 여기에 해외 유출인구를 더하여 각 년도 조선 내 현주인구($P_1,..P_4$)를 추정하였다. 1945년 8월 시점의 인구는 1940-1944년 연평균 자연성장율에 기초한 성장분과 1945년 해방 직전까지의 유출인구를 합하여 추정하였다.

<식 1>

$$\dot{r} = 1/5 * \ln((P_5 + O_1\exp(4r) + O_2\exp(3r) + O_3\exp(2r) + O_4\exp(r) + O_5)/P_0)$$

$$P_1 = P_0\exp(\dot{r}) - O_1$$
$$..$$
$$P_5 = P_4\exp(\dot{r}) - O_5$$

1925년 이전은 국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생, 사망 동태 신고 자료도 크게 불완전하다. 여기서는 출생 및 사망 신고가 불완전하지만, 신고 자료의 시계열적 변화는 유용한 지표일 수 있다고 가정하고, 1925-1930년 자연성장율과 출생, 사망 신고통계에 기초한 동태율 차이(출생율-사망율)의 관계에 기초하여 1925년 이전의 자연성장율을 추정하였다(<표 5>).

분석결과 자연성장율은 1910년 10.57‰에서 1940-1944년에는 24.42‰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5-1920년 자연성장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이 시기 아시아 많은 지역을 지배했던 콜레라의 영향으로 인식된다(金哲, 1965). 1930년에서 1940년까지는 자연성장율이 20‰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1940-1944년 자연성장율이 24.42‰로 매우 높게 추정된 것이다. 김두섭(1993)과 권태환(1977)은 1940-1945년 자연성장율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2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4>). 본 추정에 문제가 있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1944년 국세조사 자료의 오류이다. 권태환은 1944년 자료는 다른 시기 조사에 비해 정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Kwon,

1977). 2차 대전 막바지 비상상황에서 조선노동력과 군사력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로서 고령층이 과다집계되거나 징용회피로 젊은 남성연령층이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 유출된 인구가 국세조사에 이중 집계되었거나, 해외 유출인구 자체가 과다 집계되었을 수도 있다.

<표 4> 자연성장율의 선행 추정치들

(단위: ‰)

김두섭

	출생	사망	자연성장율
1925	41	29	12
1930	43	24.3	18.7
1935	43.5	23.3	20.2
1940	44	23.4	20.6
1944	44	23.8	20.2

권태환

	출생	사망	자연성장율
1925-30	44.9	26.2	18.7
1930-35	44.1	23.9	20.2
1935-40	43.8	23.2	20.6
1940-45	42.1	22	20.1

조선총독부

	출생	사망	자연성장율
1925	38.41	20.74	17.63
1930	38.64	18.98	19.65
1935	29.46	19.83	9.63
1940	32.04	17.95	14.09

김 철

	출생	사망	자연증가율
1921-1925	42.8	25.7	17.1
1926-1930	42.4	25.0	17.6
1931-1935	42.4	21.6	20.8
1936-1940	42.2	21.4	20.9
1941-1944	41.2	(18.9)	25.76

자료: 김두섭 (2002), Kwon(1977), 朝鮮總督府 (1941),

金哲 (1965), 1940-1944년 사망률은 국세조사에 따른 사망률 값임. 조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의 차이로 계산된 사망률은 15.8‰로 너무 작음. 유출인구 추정의 오류와 자연증가율이나 출생률 추정에 편의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함 (p. 96).

<표 5> 신고된 출생율과 사망률 차이와 추정된 자연성장율, 1910-1944,

(단위: ‰)

	동태신고자료 출생율-사망율	자연성장율
1910-1915	9.42	(10.57)
1915-1920	7.14	(8.01)
1920-1925	12.84	(14.41)
1925-1930	15.55	17.45
1930-1935	12.64	20.63
1935-1940	13.30	20.44
1940-1944	16.61	24.42

주: 출생율과 사망률의 차이(출생율-사망율)는 통계청(1994) 『일제시대 주요경제사회지표』에 보고된 인구, 출생, 사망건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자연성장율은 본 연구의 추정치임. 1925년에서 1944년까지의 자연성장율은 국세조사에서 집계된 총인구와 만주와 일본에 유출된 인구를 합하여 추정하였고, 1925년 이전은 1925-1930년 신고동태율의 차이와 자연성장율의 관계에 기초하여 추정하였음.

2. 출산율과 사망률 추정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출생 신고 자료가 크게 부실하다. 김철(金哲, 1965)은 1937년 이후 동태조사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지적하지만 1930년대 후반 이후에도 미등록이나 신고지연 사례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조사 시점 0-4세 인구와 조사 이전 5년 동안 등록된 출생아수 합에 차이가 지나치게 작으며 또한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표 6>). 예를 들어 1925년 국세조사를 통해 집계된 0-4세 인구는 3,069,586명이고, 1921년에서 1925년 신고된 출생아수의 합은 3,197,555명이다. 두 수치의 비는 0.96이다. 국세조사와 신고자료가 정확하고, 매해 출생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 비는 출생에서 만 4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확률(1-유아사망율)과 같다. 그렇다면 이 당시 0-4세 생존율은 최근의 사망률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1935년과 1940년 집계에 따르면 생존한 인구가 출생인구의 총합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출생동태 신고의 불완전함 때문에 동태자료를 이용하여 출생율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큼을 가리킨다. 조선총독부가 1941년 국토계획조사참고자료로 구성한 보고서에는 신고건수에 기초하여 1935년 조선인의 동태율을 분석한 부분이 있다(朝鮮總督府, 1941). 이 자료에서는 조선인의 조출생율이 29.46‰이고 조선내 일본인의 조출생율은 24.23‰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1937년 일본 내 거주하는 일본인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 표준화하면 조선인의 조출생율이 43.24‰이고 조

<표 6> 국세조사의 0-4세 인구와 등록 자료의 출생아수의 비교

센서스 0-4세 인구(A), 명							
1925년	3,069,586	1930년	3,281,683	1935년	3,671,581	1940년	3,897,658
센서스 이전 5년 등록자료에서 집계된 출생아(B), 명							
1925년	712,278	1930년	760,602	1934년	625,979	1940년	735,400
1924년	680,828	1929년	719,135	1933년	615,579	1939년	815,516
1923년	709,908	1928년	710,558	1932년	590,035	1938년	792,975
1922년	585,419	1927년	687,142	1931년	604,275	1937년	628,205
1921년	509,122	1926년	665,604	1930년	705,906	1936년	615,381
계	3197,555		3,543,041		3,141,774		3,587,477
A/B	0.959979		0.926233		1.168633		1.086462

자료: 통계청. KOSIS

선내 일본인의 조출생율은 37.76‰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인의 출산율이 일본인보다 더 높다고 가정한다면, 조선인의 조출생율은 43.24‰보다 더 높을 수 있다. 김두섭과 권태환의 추정치도 이 수치와 비슷하지만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추정하였는지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표 5>).[1)]

여기서는 국세조사에서 집계된 0-4세 인구와 15-49세 모의 연령비(모자비, CWR)에 기초하여 조출생률을 추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식 2>). k는 0-4세 인구와 0세의 인구의 비이다. k는 매해 출생크기와 영유아의 생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40년과 1944년 국세조사결과는 각 세별 인구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940년과 1944년 k 값을 구하면 각각 4.40과 4.62이다. 0-4세 인구가 0세 인구의 4.4배에서 4.6배라는 의미이다. 이 비는 만일 출산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출생아가 4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0.88-0.92 수준임을 가리키는데 이는 1970년 사망률 수준과 유사하다. 권태환은 생명표를 이용하여 1920년에서 1945년 영유아 생존율을 0.78-0.83로 추정하였다. 결국 국세조사에서도 0세 인구가 과소 집계되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출생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k는 주로 영유아의 생존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k 값을 정하였다[2)].

1) 김두섭(1993)의 연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출생률이 추정되었는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권태환은 0세 인구에 생존율을 적용하고 음력/양력 집계차이 분을 고려하여 출생시 인구를 추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Kwon, 1977).

2) 1920-1925년에는 생존율을 0.75로 가정하고 생존율 증가를 고려하여 5년 간격마다 0.01씩 값을 증가시켰다.

<식 2>

$$CWR = {}_5N_0 / {}_{35}N_{15,F}$$

$$GFR \simeq CWR/k$$

$$TFR = n\sum_x ASFR_x \simeq 35\,GFR$$

$$CBR = GFR \times ({}_{35}N_{15,F} / {}_wN_o) \times 1000$$

이런 가정에서 추정된 출산율과 출생율은 <표 7>과 같이 요약된다. 가임여성 1명당 0-4세 인구(CWR)는 1925년 0.71명에서 1944년에는 0.76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임여성1명당 출생아(GFR)는 같은 기간 0.188명에서 0.194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6.6명에서 6.8명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조출생율은 인구 천명당 43.0‰에서 43.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동태도 출생에 비해 신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과소 보고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신고의 완전성이 개선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등록 자료의 추이를 통해 사망률을 계측하는 것도 무리가 크다. 그래서 사망률을 직접 추정하지 않고 앞에서 구한 출생률과 자연성장율 추정치의 잔차 값으로 사망률을 추정하였다(<표 8>). 조사망율은 1920-1925년 28.63‰에서 1925-1930년에는 24.8‰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30년대는 조금 더 완만하게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1940년 이후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1940년대의 낮은 사망률이 과연 실질적인 사망률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좀 더 실증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7> 센서스 연령구조를 이용한 출산율과 출생율 추정

년도	1925	1930	1935	1940	1944
CWR	0.706	0.696	0.726	0.731	0.765
GFR	0.188	0.183	0.189	0.187	0.194
TFR	6.592	6.409	6.601	6.560	6.782
CBR (‰)	43.0	42.3	42.9	42.4	43.1

주: <식 2>에 따라 추정하였음.

<표 8> 자연성장율의 추정, 1910-1944

(단위: ‰)

	조출산율	조사망율	자연성장율 *
1910-1915			10.57 (10.54)
1915-1920			8.01 (8.07)
1920-1925	43.04	28.63	14.41 (14.26)
1925-1930	42.25	24.80	17.45 (17.27)
1930-1935	42.94	22.31	20.63 (20.22)
1935-1940	42.44	21.99	20.44 (19.87)
1940-1944	43.12	18.54	24.42 (23.58)

주: * 앞의 수치는 조선내지인의 자연성장율이고 후자는 한반도 내외 조선인을 모두 포함한 자연성장율임.

3. 해외유출인구의 규모

식민지 시기는 한반도 밖으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09년 일본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은 학생과 관료 등을 합하여 790명에 그쳤지만 해방직후 집계에 따르면 210만 여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였다(朴在一, 1957; 金哲, 1965). 1910년 만주에 거주한 조선인은 22만 여명이었는데, 1945년 해방직후에는 216만 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박창욱, 1995). 물론 이런 수치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주와 일본에 체류한 조선인이 해방 직전 4백만이 넘으며, 당시 조선 내 총인구가 2천5백만이었음을 가름할 때 식민지 시기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의 규모는 매우 크다.

식민지 시기 거대한 규모의 해외 이주가 이루어진 것은 농촌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이농의 압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가 1910년에서 1918년에 걸쳐 토지조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소유권이 지주에게 집중되어 전체 농가의 대부분 (약77%)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인구의 80%가 농민인데 그 중 76.9%가 전혀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거나 토지가 부족한 자작겸 소장농이 되었다."(김철, 1965:40). 또한 1920년대 쌀 생산 중심으로 단작형으로 전화했던 한국 농업이 쌀값 폭락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농촌이 더욱 피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3-1936년 이어진 대수해는 농민을 위기상황에 내몰았다(한석정, 2003). 이런 농촌경제의 붕괴는 농촌의 과잉인구 압력을 동반하였고, 농지를 잃은 많은 농민들이 도시빈민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

이주조선인의 목적지는 주로 중국(만주)과 일본이었다. 중국으로의 이주한

조선인은 거의 대다수 만주지역으로 일컬어지는 동북삼성에 분포하였다. 1953년 7월 1일 중국센서스에 따르면 요녕(遼寧), 길림(吉林), 흑룡(黑龍) 동북 삼성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99%이고, 나머지 1%가 북경(北京), 천진(天津), 하북(河北), 산서(山西), 내몽고 등에 거주하였다(윤호, 1993). 만주로의 조선인 이주는 식민지 초기부터 활발히 이루어졌고, 일본의 대만주개발이 본격화된 193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으로의 조선인 이주는 조선 농촌경제의 붕괴와 일본기업의 노동수요 요구, 민족운동과 도시빈민문제 발생을 우려한 이주통제 요구 등이 교차되면서 1920년대부터 꾸준히 늘다가 1939년 이후 대규모의 징병과 집단 노동력 이주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식민지 시기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 국세조사, 경찰호구조사, 신고 자료 등을 이용하여 타당하게 추정한 연구들도 있지만, 만주에 이동한 조선인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매우 불완전하고 연구결과들 사이 상충된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1) 만주의 조선인

선행연구들과 이에 사용된 자료를 통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그려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의 이주와 성장이 있었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인구를 정하기가 어렵다. 완전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1943년 작성된 <강덕7년(1940년)국세조사보고>에 집계된 인구를 기준 인구로 간주하였다(滿洲 國務院總務廳, 1943). 이 보고서에는 만주 지역내 거주하는 조선인의 총인구가 1940년 1,450,384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만주에 도착한 시기별로 인구를 집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40년 중국동북지방 조선족인구의 약 30%가 그 지역 출생자이고 나머지 70%는 조선에서 이주해왔고, 그 중 77%가 1926년 이후에 이주한 인구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도만시기별 인구에 기초하여 이주당시의 인구 크기를 추정하였다(<표 9>). 이주 당시의 인구는 1940년 집계된 도만시기별 인구에 사망률을 역산하여 추정하였다. 사망률은 조선 내 1925-1940년 조사망율의 평균값(19.725‰)값을 적용하였다. 1941년에서 1944년 만주 이주인구는 조정된 연차별 증가인구 중 자연증가분을 뺀 잔여 값으로 추정하였다. 자연증가율은 중국센서스 1953년과 1964년 조선족의 인구(1,111,274에서 1,348,594명)의 연평균 성장률(17.6‰)로 가정하였다.

<표 9> 도만시기별 조선인 인구

(단위: 명)

도만시기	남	여	계
1940년	107,204	62,522	169,726
1939년	80,779	60,505	141,284
1938년	48,706	39,012	87,718
1937년	46,212	37,859	84,071
1936년	36,538	29,959	66,497
1935년	31,409	26,348	57,757
1934년	27,022	22,123	49,145
1933년	10,866	9,071	19,937
1932년	9,224	7,652	16,876
1931년	6,012	5,371	11,383
1930년	7,805	7,128	14,933
1929년	5,555	4,774	10,329
1928년	7,260	6,244	13,504
1927년	8,812	7,689	16,501
1026년	11,389	10,059	21,448
1925년이전	124,789	107,670	232,459
만주내출생	219,993	216,823	436,816

자료: 만주 國務院總務廳 (1943)

임시국세조사보고에는 1925년 이전 만주에 이주한 인구가 총 232,459명으로 합산되어 있다. 이 수치를 간도지역 국경경찰이 조사한 통계자료 중 1910년에서 1925년 이주한 인구의 시계열 분포에 비례하여 할당하였고 여기에 사망률(1920년 조선 내 사망률)을 고려하여 이주 시점의 인구를 추정하였다(<표 10>).

이와 같이 이주 당시의 인구크기를 계산한 뒤, 1940년 집계된 총인구에서 그 해 이주자 인구를 뺀 값에 자연성장율을 적용하여 전 년도 재만 인구를 구하고 여기에 다시 이주인구를 빼고 자연성장율을 적용하여 그 이전 재만 인구를 반복해서 추정하였다. 1940년 이전 자연성장율은 김철(金哲, 1965), 박재일(朴在一, 1957)이 1920-1940년 일본 내 조선인의 평균 자연성장율 수준으로 가정한 값(12.775‰)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식민지 기간 만주에 거주한 조선인 분포는 <표 11>과 같이 추정된다. 1910년에서 1945년 해방직전까지 총 140만 명이 만주로 이주하였고, 재만인구는 1945년 195만명에 이른다. 이주자의 크기는 시기마다 불규칙한 증감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18년-1919년 이주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향한 조선인이

<표 10> 간도지방 이주 조선인

(단위: 명)

년도	a	b
1910-13	68,369	79,313
1914	8,831	10,244
1915	9,325	10,818
1916	5,437	6,307
1917	12,742	14,781
1918	30,691	35,604
1919	40,203	46,638
1920	10,925	12,674
1921	5,045	5,852
1922	2,429	2,818
1923	721	836
1924	3,199	3,711
1925	2,467	2,862
계	200,384	232,459

자료: a는 김철(金哲, 1965: 30)에서 재인용. b는 <표9>에서 제시된 1925년 이전 도만 인구크기에 맞추어 a의 분포를 조정한 것임.

많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윤휘탁, 1995:1205). 한편 1920년대 초반에는 이주인구가 크게 줄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기 일본이주자가 크게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노동시장에의 흡수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1926년 이후부터 1933년까지 매년 만5천여명씩 만주 이주가 발생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만주로의 이주는 처음에는 이북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농촌경제 전체가 붕괴해 가면서 이남지역 출신의 농민들도 대거 만주로 이주하였다. 또한 만주로의 이주는 1931년 만주사변, 1936년 만척식회사 설립,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만주개발과 함께 더욱 확장되었다. 1931년 9·18 사변을 통해 일본은 만주를 강점하게 되었고 1932년 만주국을 세웠다. 이로부터 일본의 대만주개발이 시작되었다. 돈화-도문, 도문-독단, 개산-로투을 잇는 동만철도와 남만철도, 그리고 조선 항구와 대련항구를 이용해 많은 자원을 일본으로 실어갔다(주성화, 2004). 자원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이동도 활발해 졌다. 만주국 초기 자유 이민이 수십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7년 이후부터는 수 만명의 개척이민 정책이 시행되었다(한석정, 2003). 일본정부는 1936년 선만척식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의 조선인 정책이민사업을 실시하였다[3]. 집단이주는 1937년 간도지역에서, 1939년과 1940년에는 목단강과 흥안 남성을 포함하

<표 11> 재만조선인과 이주자

(단위: 명)

년도	재만조선인	이주자	이주요인/특성
1910-1913	237,718	99,245	합방
1914	253,575	12,819	소작농화
1915	270,050	13,236	독립운동
1916	281,217	7,717	이북출신중심
1917	302,896	18,086	연변중심이주
1918	350,329	43,564	
1919	411,870	57,065	
1920	432,295	15,163	
1921	444,820	7,002	
1922	453,874	3,371	조선인의 일본노동시장유입
1923	460,673	1,001	
1924	470,998	4,440	
1925	480,363	3,348	
1926	511,220	24,721	
1927	536,771	19,020	조선 농촌경제붕괴
1928	559,194	15,566	대흉년, 이남 출신농민이주
1929	578,244	11,906	
1930	602,495	16,864	
1931	623,048	12,856	만주사변
1932	650,072	19,064	만주국 설립
1933	680,898	22,522	
1934	745,116	55,519	
1935	818,566	63,931	1933-1936년 대수해
1936	901,152	72,129	만척주식회사(1936)
1937	1,002,021	89,357	중일전쟁
1938	1,106,181	91,359	집단이주
1939	1,264,504	144,192	만주전역이주확산
1940	1,450,384	169,726	
1941	1,573,556	97,790	전시체제
1942	1,653,181	52,087	징집, 징용
1943	1,714,166	32,055	
1944	1,777,423	33,259	
1945	1,948,375	139,846	
		1,395,394	

주: 이주자를 먼저 구하고 연차별 재만 조선인 크기는 전년도 재만조선인의 자연성장과 당해 이주조선인 수를 합하여 추정한 것임

3) 한석정(2003: 69)은 일본정부가 집단이주정책을 펼친 데에는 만주개발이나 일본으로의 이주유입 제한 목적이외 1933-1936년에 걸쳐 조선 남부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수해와 그에 따른 이재민 범람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여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자유이주도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렇게 활발한 이주로 인해 만주 조선인의 규모는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1939년과 1940년에는 매년 15만 여명이 이주하였다. 이렇게 이주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정착하는 지역도 넓어져 나갔다. 만주 지역 초기 이주는 주로 연변지역에 밀집하여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60% 이상이 연변에 거주하였지만 이후 연변 이외 지역으로 이주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1944년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38%까지 줄었다고 한다(박창욱, 1995).

2) 일본의 조선인

여기서는 박재일(1957)이 추정하였던 방법처럼, 국세조사 인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제하고 호구자료의 연차별 인구의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하여 1910년에서 해방직전까지 일본이주조선인과 재일조선인 규모를 추정하였다. 1920년 이전은 국세조사와 호구조사의 차이(d)를 매해 인구변동치의 한 요소로 가정하여 역으로 인구를 추정해 나갔다. <식 3>에서 k는 국세조사 시점을 가리킨다. $\dot{p}_{t+1}$은 추정된 인구로서, 호구자료의 전년도 인구(p_t)에 연차별 성장률과 차이지수(d)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식 3>

$$\dot{p}_{t+1} = p_t * (1 + {}_1r_t + d).$$

$${}_1r_t = (p_{t+1} - p_t)/p_t$$

$$d = (p_k^{census} - p_k)/p_{k-1}$$

1920년 이후 인구는 호구자료의 연차별 차이(${}_1d_t$)와 국세조사와 호구자료상에서 보이는 인구증가의 차이분(D)을 인구변동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하여 추정하였다 (<식 4>).

<식 4>

$$\dot{p}_{t+1} = \dot{p}_t + {}_1d_t + \frac{{}_1d_t}{{}_{10}d_t} * D$$

$${}_1d_t = p_{t+1} - p_t$$

$${}_{10}d_t = p_{t+10} - p_t$$

$$D = (p_{t+10}^{census} - p_t^{census}) - (p_{t+10} - p_t)$$
$$= (p_{t+10}^{census} - p_t^{census}) - {}_{10}d_t$$

이렇게 재일 조선인 규모를 추정한 뒤, 연차별 인구차이 중 자연성장에 따른 변화를 뺀 값을 재일이주 조선인 규모로 추정하였다. 식민지 시기 일본의 자연증가율에 대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박재일(朴在一, 1957)은 1920-1940년 일본인의 자연성장율이 평균 12.78‰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에 도착한 조선인 대부분이 가임연령이었지만 남녀비율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생활상태가 불리하고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재일조선인의 자연성장율도 일본인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표 12>는 식민지 기간 동안의 재일조선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이다. 1910년에서 1916년까지는 이주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1917년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박재일(朴在一, 1957)이 지적하듯이, 1917년을 기점으로 부유하던 조선농민이 일본 노동자로 전환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1920년대 초반에는 일본여행허가 기준이 완화된 영향도 연관될 수 있다. 1922년-1924년 약 11만 명 정도가 이주하였다. 이 세대가 재일 이주 세대 중 가장 오래된 세대로서 인식된다(朴在一, 1957:26). 1925년-1927년 사이에는 이주 규모가 다소 떨어지지만, 1928년에는 9만 여명으로 반등한다. 1930년과 1931년에도 이주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박재일(朴在一, 1957: 29)은 미증유의 풍작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는데 이 시기 쌀값 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오히려 이 시기 조선인의 일본 이주가 줄어든 것은 조선 내 유출요인보다는 일본 내 유인요인의 변화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당시 경제대공황의 충격으로 일본사회가 조선인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후 대공황을 타개하는 출구로서 일본의 만주침략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경제는 다시 동력을 받았고 조선인의 이주 물결도 1938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표 12>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

(단위: 명)

년도	재일조선인	이주자	이주요인/특성
1910	1,485	500	유치기
1911	2,527	1,023	
1912	4,175	1,615	
1913	4,894	666	
1914	4,986	28	
1915	5,324	274	
1916	7,180	1,787	
1917	16,736	9,464	
1918	28,170	11,220	일본노동시장 편입
1919	35,505	6,973	
1920	40,755	4,793	
1921	52,703	11,424	조선농민소작화
1922	82,453	29,073	
1923	111,670	28,157	
1924	164,951	51,846	
1925	181,496	14,424	
1926	201,161	17,332	
1927	239,956	36,209	일본유입억제, 만주개발이주
1928	334,310	91,269	조선농민층몰락
1929	386,697	48,089	이남출신
1930	419,009	27,340	대공황
1931	437,551	13,154	만주사변
1932	504,204	61,028	만주국설립
1933	564,723	54,036	
1934	639,695	67,712	
1935	720,881	72,962	
1936	780,616	50,466	
1937	822,257	31,605	
1938	881,407	48,579	
1939	1,030,242	137,503	
1940	1,241,315	197,827	전시체제, 강제동원
1941	1,504,509	247,234	
1942	1,651,617	127,765	
1943	1,894,623	221,771	
1944	1,945,968	26,986	
1945	2,100,000	129,012	
		1,881,145	

주: 연차별 재일 조선인은 <식 3> <식 4>에 따라 구하고 이주자는 당해 조선인과 전년도 재일조선인의 자연성장의 차이로 구함.

조선인의 일본 이주는 조선 농촌경제의 파탄과 일본의 군수경제의 흡인력이 결합되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으로 오사카, 도쿄, 아이치 현, 후쿠오카 등 주요 공업, 탄갱지역으로 분산되었다. 이렇게 1910년에서 1938년까지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총 79만 여명이고 1926년에서 1938년 사이에는 62만 여명에 달하였다.

1939년-1945년 사이에는 자유이주와 더불어 강제연행으로 재일 조선인이 급증하였다.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1939년에는 노무동원계획, 1942년에는 징병제를 발표하면서 군사,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였다. 이 시기 총 11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이주하였고 재일조선인은 103만 여명에서 1945년에는 210 만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4. 식민지 시기 한반도 내외 인구 동태의 특성

앞에서 구한 자연성장율과 해외 유출인구에 기초하여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인구동태의 성격을 조명해 볼 수 있다(<표 13>)[4]. 식민지 조선 인구 동태의 중요한 특성은 무엇보다 조선 안에서의 완만하거나 정체된 인구성장과 대비하여 해외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 내 인구는 1910년 1,654만 명에서 해방직전 2,520 여 만명으로 35년간 870만명이 증가하였다. 자연성장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조선 내 인구증가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1>). 이는 일본과 만주로 많은 조선인이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식민지배 35년을 거치면서 일본과 만주에 거주한 조선인의 규모는 약 400만 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일본 내 인구는 1925년까지는 평균 30퍼센트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1920년까지는 연평균 8.6%를 유지하다가 1920년-1925년 기간은 2.1%로 낮아졌다가 1925-1930년은 4.5%, 1930-1935년 6.1%로 증가하다가 1935-1940년은 연평균 11.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만주와 일본으로 향한 조선이주자의 규모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컸다(<그림2>).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규모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수를 상회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의 만주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기회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이 큰 폭을 차지하였으나, 이어 전시체제의 강제적인 군사, 노

4) 식민지조선의 인구동태에 대한 기존 추정치들과의 비교는 <부록표>를 참조할 수 있다.

동 동원으로 만주보다 일본으로 더 많은 젊은 남성인구가 유출되었다.

결국 1910년에서 1945년 기간 사이 조선의 인구는 1,260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총 인구 성장 중 69% 인 약 870 만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80만여 명(31%)이 해외에 분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4).

<표 13>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와 해외 조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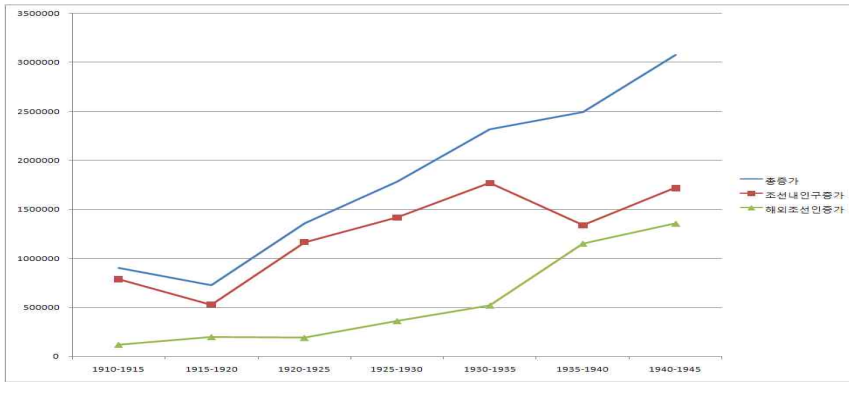
(단위: 명)

	조선내인구	성장율	일본내 조선인	성장율	만주내 조선인	성장율	총인구	성장율
1910	16,540,663		1,485		156,264		16,698,411	
1911	16,689,683		2,527		183,072		16,875,281	
1912	16,839,685		4,175		210,222		17,054,081	
1913	16,992,223		4,894		237,718		17,234,836	
1914	17,159,002		4,986		253,575		17,417,563	
1915	17,326,883	0.009	5,324	0.255	270,050	0.109	17,602,256	0.011
1916	17,456,221		7,180		281,217		17,744,618	
1917	17,568,550		16,736		302,896		17,888,182	
1918	17,654,546		28,170		350,329		18,033,046	
1919	17,731,977		35,505		411,870		18,179,352	
1920	17,854,109	0.006	40,755	0.407	432,295	0.094	18,327,159	0.008
1921	18,092,988		52,703		444,820		18,590,510	
1922	18,321,291		82,453		453,874		18,857,618	
1923	18,556,171		111,670		460,673		19,128,513	
1924	18,767,307		164,951		470,998		19,403,256	
1925	19,020,000	0.013	181,496	0.299	480,363	0.021	19,681,859	0.014
1926	19,327,123		201,161		511,220		20,039,504	
1927	19,609,184		239,956		536,771		20,385,911	
1928	19,844,562		334,310		559,194		20,738,066	
1929	20,130,887		386,697		578,244		21,095,828	
1930	20,438,000	0.014	419,009	0.167	602,495	0.045	21,459,504	0.017
1931	20,860,111		437,551		623,048		21,920,710	
1932	21,210,382		504,204		650,072		22,364,657	
1933	21,571,412		564,723		680,898		22,817,032	
1934	21,893,217		639,695		745,116		23,278,028	
1935	22,208,000	0.017	720,881	0.109	818,566	0.061	23,747,447	0.020
1936	22,572,981		780,616		901,152		24,254,749	
1937	22,913,494		822,257		1,002,021		24,737,772	
1938	23,241,991		881,407		1,106,181		25,229,579	
1939	23,435,448		1,030,242		1,264,504		25,730,194	
1940	23,547,000	0.012	1,241,315	0.109	1,450,384	0.114	26,238,699	0.020
1941	23,828,080		1,504,509		1,573,556		26,906,145	
1942	24,234,052		1,651,617		1,653,181		27,538,850	
1943	24,576,032		1,894,623		1,714,166		28,184,821	
1944	25,120,000		1,945,968		1,777,423		28,843,392	
1945	25,266,258	0.015	2,100,000	0.113	1,948,375	0.063	29,314,633	0.023
1910-1945		0.012		0.207		0.072		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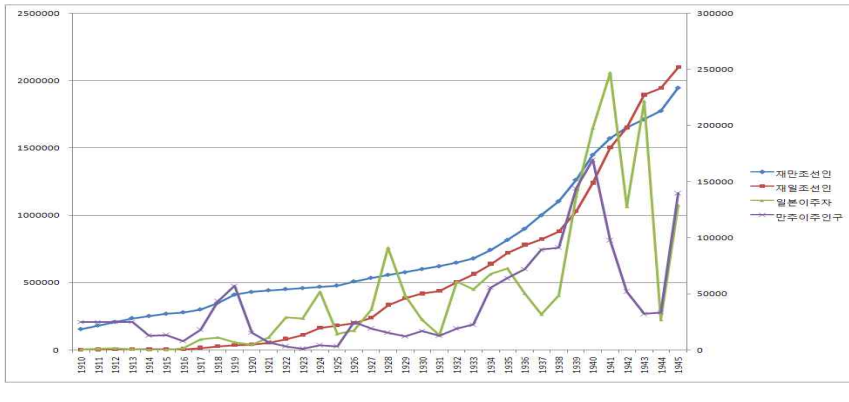
<표 14>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증가와 해외조선인의 증가

	총증가(명)	조선내인구증가(명)	해외조선인증가(명)	조선내인구증가(%)	해외조선인증가(%)
1910-1915	903,845	786,221	117,625	86.99	13.01
1915-1920	724,903	527,226	197,676	72.73	27.27
1920-1925	1,358,290	1,165,891	188,809	85.84	13.90
1925-1930	1,781,388	1,418,000	359,645	79.60	20.19
1930-1935	2,316,550	1,770,000	517,943	76.41	22.36
1935-1940	2,491,252	1,339,000	1,152,252	53.75	46.25
1940-1945	3,075,934	1,719,258	1,356,676	55.89	44.11
1910-1945	12,616,222	8,725,596	3,890,625	69.16	30.84

<그림 1>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증가와 해외조선인 증가



<그림 2> 식민지 시기 해외 조선인과 이주



IV. 맺음말

한국의 인구변동은 식민주의, 해방, 분단,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지는 압축적인 근대사속에서 역시 압축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인구학 밖에서 논쟁되었지만 정작 인구학 안에서는 침묵되었던 식민지시기 조선의 인구동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식민지 인구동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인 자료의 질의 문제를 '오류의 범위를 전제한 근거 있는 추정'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선내지인과 해외 조선인동태에 대한 가용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자료들의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조선내의 인구동태와 조선 밖의 인구동태를 종합적으로 추정하였다.

식민지 시기 조선내 인구의 자연성장율은 1910년-1915년 사이 10.5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35-1940년에는 20.4‰, 1940-1944년에는 24.4‰로 증가하였다. 1940-1944년 높은 성장률은 강제동원과 이를 피하려는 불안한 정국에서 이중적으로 인구가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민지 시기 실질적인 자연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출생율의 증가보다는 사망률의 감소의 영향이 더 컸다. 출생율은 1910년에서 1944년까지 43‰ 수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출생율과 성장률의 잔차 값으로 구한 사망률은 1920년대 초반 29‰에서 계속 감소하여 1935-1940년에는 22‰, 1940-1944년에는 18.5‰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940-1944년의 낮은 사망률은 이 시기 자연성장율과 마찬가지로 자료 오류의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런데 자연성장율의 증가와 사망률의 개선만이 이 시기에 일어난 인구변동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시기 자연성장율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인구성장이 1930년대 중반부터 떨어지고 이후 정체되었다. 이는 많은 인구가 해외로 이출한 때문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과 만주에 거주한 조선인의 규모는 연평균 9.2%씩 증가하였으며 해방직전에는 그 수가 약 400만에 이르렀다. 만주와 일본으로 흐른 인구의 유출규모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1910년대는 만주로의 이주가 더 활발하였으며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으로의 이주가 크게 증가하였고 만주로의 이주규모를 상회하였다. 1930년대 중후반 부터는 만주개발 유인정책에 수반되어 만주로의 이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강제적 노동과 군사력 동원으로 많은 남성인구가 일본으로 연행되었다.

이렇게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인구는 1,260 만 여 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총 인구 성장 중 약 69% 인 870 여만 명이 한반도 안에 있고 31%가 해외로 유출하였다. 총 증가인구의 3할 정도가 해외에 있고 그 인구가 대부분 노동력인구였던 현상은 조선의 경제 회생을 저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식민지 시기 많은 인구가 한반도를 빠져 나간 것은 일차적으로 조선 경제의 위기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경작지를 잃어버린 많은 농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산업들이 조선 내에 취약한 상태에서 이농민들은 만주의 새로운 개간지를 만드는 소작농이거나 일본의 잠재적 노동군의 시장으로 대거 흡수해 들어간 것이다. 박재일(朴在一, 1957)이 주장하듯이 식민지 시기 조선의 경제는 농촌경제의 고사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 수탈이 부의 순환 관계를 가지면서 더 심화되었을 수 있다.

인구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 함축하는 영향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였는데 당시 조선인을 598,50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재일 조선인의 귀화가 1952년부터 허가된 것을 고려하면(강재언·김동훈, 1994:125) 해방직전 인구에 비해 1947년 재일 조선인이 크게 감소한 것은 대부분 조선으로 귀환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1953년 중국인구조사 결과에서는 재중조선인이 111 여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 수치에 비추어보면, 재일조선인의 3분의 2이상과 재중조선인의 반 정도가 조선으로 귀환하였다. 한반도 내 인구의 약 6분의 1이상이 되는 조선인이 중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해방 뒤에 조선에 귀환하였다는 것은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인구 압력과 빈곤, 사회불안의 크기를 가름하게 한다. 또한 만주와 일본에서의 상이한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이후의 귀향은 남북한의 체제 발전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디아스포라는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향수와 제국들이 각축하는 공간에서의 좌절, 적응, 저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경험이었다. 이런 집단적이고 이질적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해방 후 사회체제가 구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해방 뒤에도 귀환하지 않은 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은 일본과 중국, 한국 사이에 국적과 민족 정체성의 긴장과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에 일어난 사망률의 개선, 인구성장,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같은 커다란 인구동태는 식민지배의 통치 전략 및 그 결과와 밀접히 연관된다.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사망률의 개선은 근대적 보건과학을 통한 식민 통치의 중요한 결과였다(신동원, 1989). 식민지 시기 총량적인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논의도 있지만(주익종, 2006), 사망률 개선이 생활수준의 일반적 향상에 수반되었다는 실증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망률 개선이 생활수준 향상과는 관계없이 일어났다면, 사망률 감소에 따른 인구의 성장은 이미 심화된 농

촌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유출은 식민지의 유출요인과 식민제국 및 개척지에서의 유입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이루어졌다. 농촌경제의 붕괴는 이농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이농민의 상당 수가 만주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일본의 주변 노동 시장으로 흡수해 들어갔다. 이렇게 식민지배는 인구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또한 그 인구 동태를 통해 조선-만주-일본을 가로지르는 식민지배의 체제가 진화한 측면도 보게 된다.

<부록> 1925-1940년 조선, 일본, 중국에 거주한 조선인의 수

(단위: 명)

권태환 추계(Kwon, 1977)					
	한국	일본	만주	기타중국	전체
1925년	19,020,030	184,230	589,405	2,462	19,796,127
1930년	20,438,108	418,990	672,665	2,593	21,532,356
1935년	22,208,102	720,818	915,809	7,206	23,851,935
1940년	23,547,465	1,241,178	1,450,384	129,446	26,368,473

	박재일추계 (1957)	김철 집계* (1965)		
	한국	일본	만주	전체
1925년	19,020,030	187,102	531,973	19,739,105
1930년	20,438,108	419,009	607,119	21,464,236
1935년	22,208,102	720,818	826,570	23,755,490
1940년	23,547,465	1,241,315	1,309,053	26,097,833

필자 추계				
	한국	일본	만주	전체
1925년	19,020,030	181,496	480,363	19,681,889
1930년	20,438,108	419,009	602,495	21,459,612
1935년	22,208,102	720,881	818,566	23,747,549
1940년	23,547,465	1,241,315	1,450,384	26,239,164
1945년	25,266,258	2,100,000	1,948,375	29,314,633

주: * 추계치가 아니고 일본외부성과 만주국정부의 자료에 기초해 집계한 것임.(金哲, 1965: 29)

<참고문헌>

강재언·김동훈 (1994) (하우봉, 홍성덕 옮김, 2000) ≪재일한국, 조선인-역사와 전망≫ 한림신서.

권태환 (1996) ≪세계속의 한민족: 중국≫ 장문각.

김철 (金哲, 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김게르만 (2005)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김두섭 (1993) "한반도의 인구변천, 1910-1990" ≪사회과학논총≫ 10:117-140, 한양대학교.

_____ (2002)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두섭 외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김민영 (2000)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 국제지역연구, 4/1:

김훈 (1962)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한국통계월보≫.

滿洲 國務院總務廳 (1943) ≪康德七年 臨時國勢調査報告≫ 全國編.

박재일 (朴在一, 1957)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朝鮮文化研究所.

박창욱 (1995) ≪연변조선족역사연구≫ 연변대학출판사.

신동원 (1989)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11/1:53-86.

윤인진 (2004) ≪코리안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윤호 (1993) "중국조선족의 인구동향" ≪한국인구학회지≫ 16/1:19-36.

윤휘탁 (1995) "1920-1930년대 만주 중부지역의 농촌사회 구성-간도지방의 조선인 농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논총-하≫ 박영석 교수 회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이채문 (2000)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 15권1호:349-384.

朝鮮總督府 (1941) ≪國土計量調査參考資料; 朝鮮人口に關する資料≫ 朝鮮總督府企劃部第一科.

주성화 (2007) ≪중국조선인 이주사≫ 한국학술정보.

주익종 (2006) "식민지 시기의 생활수준"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pp 107-144.

최봉호 (1997) "우리나라 인구통계 작성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0/1:1-26.

최석신·임채완·백형엽·조성도·이석인 (2005)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통계청 (1994) ≪일제시대 주요경제사회지표≫ 통계청.

통계청. KOSIS.

한석정. 199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___. 2003. "지역체계의 허실: 1930년대 조선과 만주의 관계" ≪한국사회학≫ 37/5: 55-79.

Kwon, Tai Hwan (1977) *Demography of Korea: Population Change and Its Components 1925-1966.*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4. 17 접수 | 2009. 7. 28 채택]